

## 朝鮮文化의 創造性 ; 哲學, 偉大한 文化形成에는 哲學的地盤이 必要[下]

安浩相

다른 社會에서 그러타듯이 朝鮮이란데 社會에 있어서도 역시 偉大한 文化의 建設은 恒常 哲學的 地盤이 잇기 始作하던 그때부터 되었던 것이다. 新羅, 高麗, 李朝 이들의 찬란한 文化를 볼 때에 우리는 거기에 哲學이 如何히 重要하여 잇다는 것을 잘 알 수 잇다. 혹은 花郎道와 佛敎의 宇宙 人生觀 혹은 儒敎의 宇宙 人生觀 우에서 그들의 文化가 創造되어졌던 것이다. 偉大한 文化는 恒常偉大한 宇宙 人生觀 卽 哲學의 土臺로서만 可能하여 필 수 잇다는 것은 비단 朝鮮의 歷史만이 아니라 支那와 印度, 希臘과 로마, 佛蘭西와 獨逸 等 이들의 諸 歷史가 또한 잘 證明하고 잇는 것이다. 過去가 그러하였으며 또 現在가 그러타려니와 未來는 더욱이나 그러한 것이다. 過去에는 哲學이 宗教란 舊殼에 둘러싸이었던 까닭에 그것은 宗教的 傾向에 超然하지 못하였으며 또 現在에 잇어선 哲學은 다시 特殊科學이란 新殼에 사로잡혀 그것은 科學的 傾向에 물들여지고 마렸다. 支化의 뿌리요, 根本土臺가 되는 哲學은 결코 過去와 같이 宗教的이어서 當然하거나 또는 現在와 같이 科學的이어서 맛보기가 되거나 해서는 絶對로 아니 될 것이요, 오직 哲學이어서 窮極 眞理的이야만 될 것이다. 過去 文化에는 宗教的 哲學이 土臺가 되었던 까닭에 그것은 周知的이엇으며 現代의 文化는 科學的 哲學이 土臺가 되었음으로써 그것은 外面的이라 아니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未來의 文化는 哲學的 哲學의 土臺우에서 創造되어 질 것으로서 그것은 窮極的이요, 또 絶對的이 될 것이다. 朝鮮의 文化가 低下의 길을 밟게 된지가 지금 한해 두해가 아니라 벌써 몇 十年이나 되어서 그 低下의 程度가 甚해졌다.

만일 우리가 비참한 狀態에 빠진 朝鮮文化를 다시 붓들어 일으켜 再生의 길을 오르게 하려면 우리는 各者가 自己의 能才와 現境을 따라 最先의 勞力을 다해서 各 領域을 發展시키는 수밖에는 더 없을 것이다. 한 民衆의 文化는 各 文化領域의 發展의 總 成果인 까닭에 저것의 發展의 極致는 오직 이

것의 그것에서 보게 된다. 文化의 原기동인 政治, 科學, 宗教, 藝術 等 이 모든 領域들에 있어서 그들의 發展程度는 永遠한 眞理의 表現程度에 依存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文化의 發展程度의 如何는 文化를 構成하는 各 領域들이 自己들의 獨特한 樣式에 依하여 人生과 宇宙의 根本眞理를 如何히 表現했는가 하는데 따라 決定되는 것이다. 文化의 各 領域들의 偉대한 發展은 『根本 眞理的』即 哲學的인데서 보게 되는 까닭에 偉대한 文化는 眞理價値의 再 表現이며 再 實現으로서 오직 哲學的 基礎위에서만 建設어질 수 있을 것이다.

偉대한 哲學이 없는 데선 偉대한 文化創造가 絶對 不可能하다. 우리의 一個人을 보더라도 우리는 우리 自身의 活動의 方向과 目的을 깊이 깨닫는 거기에서 오로지 굳센 信念과 勇氣가 생겨나서 우리의 發展에 最大의 成果를 낼 것이다. 우리의 一個人의 發展에도 그러하거늘 하물며 民衆의 文化發展에랴. 한 民衆이 一心合力하여 한 文化를 創造하려는데 있어서 깊은 人生觀과 宇宙觀 即 哲學이 要求되게 된다는 것은 不言可知的 事實이다. 肉體的으로 또는 精神的으로 서로 다른 多數의 個體들이 함께 모여 文化創造에 全力을 다 하겠다는 거기엔 참된 共通의 哲學이 있어야만 첫째로 그들의 步調가 서로 一致할 것이며 또 둘째로는 文化創造에 있어서 그들의 活動이 보다 더 強力的이며 또 效果的일 것이다. 깊은 哲學이 없는 民衆에 依하여 한 낫의 文化가 創造되어지리라고는 到底히 믿어질 수가 없고 도리어 그것이 破壞되어질 憂慮밖에 더 있을 수 없다. 참된 人生觀과 宇宙觀 即 哲學이 없는 그 民衆의 勞力과 活動은 제 民衆의 文化는 勿論이려니와甚하면 他 民衆의 그것까지 罪되게도 破壞하는 結果를 내게 된다. 이것은 東西古今의 諸 民衆의 興亡史와 또 現在 各 社會가 敢行하고 있는 諸 事實이 如實히 證明하고 있지 아니한가?!

萬物을 살리며 죽이는 太陽은 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뿐이며 고기(魚)를 發育케하며 썩(腐敗)게 하는 물(水)은 두 가지가 아니라 오히려 한 가지만이다. 그러나 太陽을 쏘이는 萬物은 自身의 生活力의 如何에 따라 혹은 살며 혹은 죽게 되는 것이며 또 물에 든 고기는 自身의 生命의 有無에 따라 혹은 發育하며 혹은 썩게 되는 것이다. 우리의 人間도 오로지 이와 같아서 참된 哲學의 有無에 따라 文化創造가 左右되어지는 것이다. 깊은 哲學을 所有하지 못한 民衆은 흡사히 指南鐵 일흔 배(船)와도 같아서 苦海속에서 自己의 存在조차 危殆하게 된 形便이라 어찌 彼岸의 目的地인 文化 創造에까지 到達하리라고 바랄 수 있으리?! 우리는 哲學이 있어 앞길을 잘 알고 가더라도 艱難環境의 高개를 넘어 우리의 目的地에 이르기가 甚히 어려울 것인데 하물며

哲學없는 우리가 길 일흔 羊과 같이 방향에 헤매이면서 文化創造란 그 目的地에 이르기를 어찌 敢히 企待하리요?! 사나운 環境을 克服하고 광폭한 告解를 건너가 眞理의 價値를 實涉하여 한 개의 文化를 建設하는 것이 곧 우리의 使命이며 義務인 것이다. 文化는 絶對眞理價値의 現實化며 또 現實(宇宙事物)의 價値化로서 人間의 自己完成의 過程인 까닭에 文化가 人間을 通하여 創造되어질 뿐만 아니라 人間自身이 또한 文化를 通하여 價値있는 人間으로서 創造되어지는 것이다. 人間과 文化, 이들은 서로서로 創造하며 또 創造되어지는 것은 오직 哲學이란 그 길을 通하여서만 可能할 뿐만 아니라 이 相互 創造過程 그것이 곧 한 개의 哲學인 것이다. 같은 眞理의 새 認識 卽 哲學이 없이는 새 文化의 創造가 到底히 不可能할 것이다. 在來의 哲學을 □取해서 過去의 文化를 그대로 옮겨놓는 것도 새 意味로 된 무방하다 할는지도 모르나 우리의 當急 問題는 永遠한 眞理를 새 角度로 認識하여 새로운 哲學우에서 朝鮮의 새 文化를 再建하기로 하지 아니하면 아니 될 것이다. 우리가 다 아다싶이 在來 朝鮮에 있어서 哲學의 大勢는 佛敎와 儒敎의 그것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純全히 印度的이거나 또는 支那의인 것만이 아니라 거기엔 반드시 朝鮮의인 것이 또한 加味되었던 것이 事實이다. 비록 이와 같이 朝鮮의 哲學과 또 그로 因하여 朝鮮의 文化가 印度와 支那로부터 輸入되었으되 그것이 恒常 朝鮮의인 것으로 再 形成되어라 하지마는 그것은 우리의 自覺的 意識의 活動 結果라기보다 오히려 偶然한 自然的 結果라 함이 可할 것이다. 現今의 우리는 過去의 그때보다 더한층 복잡하게도 外來 文□의 중압에서 呼吸하고 있다. 튼튼한 胃腸에는 多量의 美食이 오히려 利로움지만 衰弱한 胃腸엔 그것이 반드시 害로운 것이다. 健康術에 賢明한 사람은 多量 美食을 탐내기보다 오히려 自己의 병든 胃腸을 治療하기에 힘쓸 뿐이다. 우리에게 傳해온 文化遺産이 남에게 지지 아니하며 또 外來의 그것이 역시 豊富하기 짝이 없다. 그러나 이와 같이 文化材料를 豊富하게 갖었음에도 不拘하고 오늘의 朝鮮에는 아직까지 새 文化의 獨特 文化形式이 나타나지 아니한 것은 그 무슨 理由일가? 우리는 여기에 對하여 조금도 서슴지 아니하고 우리는 아직까지 文化創造形式인 새로운 眞理認識 卽 哲學이 없는 까닭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朝鮮의 새 文化를 建設하려면 우리는 獨特한 眞理觀을 세우지 아니하면 아니 될 것이다. 永遠한 眞理의 價値를 새 角度로 認識하며 그것을 獨特한 樣式으로서 再 表現, 再 實現하는데서 비로소 朝鮮文化의 獨特性和 特殊性이 이뤄질 것이다. 一 民衆文化의 特殊性은 결단코 人類文化의 普遍性을 妨害하는 것이 아니다. 人類歷史는 평탄한 沙漠의 荒野가 아니라 험준한 山岳의 地

帶며 또 世界의 文化는 絶단코 單調한 “멜로 디”가 아니라 複雜한 “썸포니”와 같은 것이다. 이 “썸포니”에선 各色의 적고 큰소리들이 제마다 제소리의 特性을 所有하지 아니하면 아니 될 것이다. 만일 거기에 어느 한 소리가 自己의 特性을 泯허버릴적엔 그 썸포니는 모두 破壞되고 말 것이다. 世界 人類文化가 또한 이와 같아서 한 民衆文化의 特殊性이 喪失되어질 때엔 그 民衆의 文化와 또 그로 因하여 人類文化의 全幅에다 永遠히 먹힐 수 없는 한 개의 커다란 구멍을 뚫러노코 만다는 것이다. 人類文化는 各 民衆의 特殊性을 말살시키는 데서가 아니라 오직 그것을 助長하는 데서만 이러지는 까닭에 그것을 없애 버리는 데서가 아니라 止揚하는 데서 自己의 完全性이 實現될 수 잇는 것이다.(끝)